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9월 12일

ESG/통신 Analyst 김준섭
joonsop.analyst@kbfg.com
연구원 차성원
swcha01@kbfg.com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실증 고객 사례로 AI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가치 입증, 수익 본격화

'리얼 서밋 2025' 행사를 통해 AI Agent의 컨셉 탈피, 수익 본격화 관련 업데이트

— 삼성SDS는 9/11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얼 서밋 2025' 행사를 통해 AI가 사람의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는 AI어시스턴트 레벨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맥락을 파악하여 업무자체를 대신하는 AI 에이전트 레벨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

— 삼성SDS는 행사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본격 수익화 단계 진입을 확인하는 한편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공유. FabriX 플랫폼의 '에이전트 스튜디오' 기능으로 비개발자도 손쉽게 AI 에이전트 제작이 가능. Agent-to-Agent (A2A) 기술과 Model Context Protocol (MCP) 등 차세대 기술 탑재로 고객 당 매출 확대와 프리미엄 가격책정 기반 마련. 2025년 상반기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으로 복수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 제공 시 단순 도구 대비 높은 가격 책정. AgentOPs (AI에이전트를 기업에 최적화)와 MLOps for AI (AI를 위한 머신러닝 최적화) 기능으로 기업의 AI 운영 컨설팅까지 수익원 다각화

실증된 비즈니스 가치로 향후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액 상승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증가

— 제조업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사례 공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일 1,500건 LLM 요청을 8개 A100 GPU 전용 인프라로 처리하며 규제 준수 업무에 활용 중이고, B엔지니어링은 연간 2만 3천 시간 절약 효과로 결제 관리와 세무처리 자동화 실현. 국내 전자조립 기업들은 품질관리 통합과 예측적 이슈 감지를 통해 불량률 감소 효과 확인

— 물류·공공 부문의 효율성 개선 사례 다수 공유. 삼성SDS 글로벌 물류시스템은 배송 추적 시간을 30초에서 1.5초로 95% 단축하여 36개국 운영 망 전반에 적용했으며, 정부 부문에서는 25개 업무 자동화로 연간 3만 3천 시간 절약 달성

— 원익 그룹은 AI agent 솔루션이 7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면서 동시통역사 비용 절감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업무 에이전트 기능 (임직원 모두가 개인 비서를 두고 업무 파트너 응대를 대신 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으로 업무 흐름이 끊기지 않는 사례가 주목받음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참여에 대한 관심 확인

— 행사에서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S는 정부가 추구하는 AI 3대 강국 (G3)에 삼성SDS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할 계획을 언급 (IT조선, 9/11)

— 정부가 두 차례 공모했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경영권 및 매수청구권 등의 우려 (공공 지분 51%, 센터 청산시 발생하는 정부 지분의 매수 의무화)로 기업들의 호응이 적었으며, 9/8일 발표한 3차 공모에서는 우려사항을 대폭 해소 (공공지분 30% 미만, 매수청구권 삭제) 한 것으로 알려짐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